

#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

공동대표: 김종배·김창국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/ 796-8364 팩스/ 793-4745 천리안 하이텔·니우콤/ RSPD

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 
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(정책실: 796-8364)  
제 목 김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논평  
날 짜 1997. 5. 30 (총 1쪽)

## 보 도 자 료

### 김대통령의 큰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

김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논평

일시 : 1997. 5. 30(금)

오늘 김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뿌리깊은 정치부패의 구태를 청산하기 위해 철저한 정치개혁과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경제개혁의 의지를 밝힌 것은 현 시점에서 너무도 당연한 바이며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. 우리는 김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를 기본적으로 환영한다. 그러나, 이러한 개혁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반성을 바탕으로 진행될 때 정당하며 힘을 가질수 있다.

그런점에서 오늘 김대통령이 대선자금에 대해 좀 더 솔직한 고백과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. 최소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공개도 없이, 이를 '야당도 어쩔수 없었던 그릇된 구조와 관행의 탓'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 다름아니다.

우리는 김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의 부정과 축재를 단죄한 것 처럼, 갈수록 정국의 혼란과 국민적인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대선자금의 전모를 공개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. 그것만이 고비용 정치구조의 악순환을 청산할 수 있으며, 뿌리깊은 부정부패의 관행을 일소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. 만일 김대통령이 이러한 기대를 끝까지 저버리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, 김대통령은 현실정치와 역사 모두에서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.

우리는 지난 전직대통령 처벌과 5.18 특별법 제정당시 김대통령이 즐겨사용했던 표현처럼 '역사와 대화하는 심정'으로 대선자금문제를 포함한 현재의 국가적 위기와 혼란에 대해 큰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한 번 촉구한다. 아울러 참여연대는 앞으로 모든 시민·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대선자금 공개와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.